
Bayer, MDI 생산 94만톤으로 확대

유럽 · 미국 플랜트 대폭증설 ... TDI 생산능력도 45만5000톤으로 증설

Bayer이 독일의 Isocyanate 생산능력을 확장한다.

Bayer은 독일 Brunsbuttel 소재 MDI(Methylene di-para-Phenylene Isocyanate) 플랜트 생산능력을 16만 3000톤으로 2만2000톤, TDI(Toluene Diisocyanate)는 16만5000톤으로 3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투자액은 2000만유로(2500만달러)로 PU(Polyurethane) 수요증가에 맞춰 증설공사를 진행하며, 원료 아닐린(Aniline)은 Antwerp 플랜트에서 공급받는다.

Bayer은 최근 스페인 및 미국 플랜트도 증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스페인 Tarragona 소재 MDI 플랜트 생산능력은 15만톤으로 5만톤, 미국 텍사스 Baytown 소재 MDI 플랜트도 30만톤으로 7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완공시기는 2006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Bayer은 Brunsbuttel 플랜트 증설이 완료되면 MDI 생산능력이 총 94만톤, TDI는 45만5000톤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증설공사는 독일 Leverkusen 소재 TDI 3만6000톤, Shell Chemicals과 합작한 Antwerp 소재 TDI 4만톤, Cydsa와 합작한 멕시코 Coatzacoalcos 소재 TDI 4만톤 플랜트를 폐쇄해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Bayer은 Sumitomo Chemical과 합작한 일본 Niihama 소재 TDI 1만4000톤 플랜트도 2004년 4월 폐쇄할 예정이다.

대신, 중국 Caojing에는 2010년까지 대규모 Isocyanate 플랜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Bayer은 세계 MDI 수요가 연평균 6%, TDI는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02>